

SK바이오팜 출범 생명과학 강화

SK그룹, 4월1일부 100% 자회사로 ... 원료의약품 공장과 시너지

SK그룹이 차세대 신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과학 사업의 강화를 위해 전문화와 고도화, 집중화를 3대 테마로 선정했다.

SK그룹에 따르면, 4월1일 생명과학 전문기업인 SK바이오팜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생명과학 사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문화와 고도화, 집중화를 3대 테마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SK는 우선 생명과학 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3월11일 주주총회에서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문을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기로 의결하고 4월1일 생명과학 전문기업인 SK바이오팜으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SK그룹의 생명과학사업은 SK㈜의 라이프사이언스 부문과 국내 백신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케미칼에서 각각 전문화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SK㈜의 라이프사이언스 부문은 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중추신경계 중심의 신약개발 사업 및 원료 의약품 생산하는 의약 중간체(CMS)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해왔으나 SK바이오팜에 관련자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켜 중추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해온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K는 2010년 12월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원료의약품(API) 공장을 준공하고 생명과학 사업의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온연속반응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합성, 분리, 정제, 건조 등 전 공정을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국제 수준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에 맞춘 원료 의약품을 연간 100톤 가량 생산할 수 있다.

SK㈜ 이만우 브랜드관리실장은 “그룹의 차세대 주력사업인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화와 고도화, 집중화를 통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28>